

“마지막 심판”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추론한다. 마지막 심판이란 그 이전에도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다른 심판이 없다는 말이 된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 그 후 신자들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심판이 세 개인지 하나인지 성경을 통해 확신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다.

불신자도 신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 그 앞에서 변명이나 항변할 수가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 주 되시므로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멸망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은 덜 심판을 받는다. 신자들의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구원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천국 턱걸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보아야 안다.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간신히 빠져나온 뚝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 불신자는 행위의 책들에 근거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신자는 상급심판을 받는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으며, 불신자의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 6:1)고 하셨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 어지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선행이나 설교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 람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동기를 보신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 에서 하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 기는 문제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정결하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이는 경성하게 된다. 우리의 동기, 행위, 말 등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동과 동기 전체 를 보신다. 은밀한 중에 전체를 보신다. 분명히 자기의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누구의 행위인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 이 기록된 자는 어린양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 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어린양의 피를 믿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저는 이미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기 때문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 에게 전가되었고, 이미 판결이 나 버렸다. 그러므로 그 판결과 동시에 우리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등 재되었기에 거기에 등재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고 자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심판날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두려워 할 이유는 없으나 경성해야 할 이유는 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면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감을 얻었음을 감사, 찬양, 헌신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05호] 2018년 8월 4일 발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앞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2021년도 홍해작전을 승리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찬양예배는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3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됩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일부 예배, 새벽기도회는 본당에서, 수요일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대면예배로 드리며, 영·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준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62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역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합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레이),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

■ 욥 42:1-6
 욥은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 기업인이었으며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매우 합리적인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욥 1:1-3) 그런 그가 사탄의 계락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고, 온몸에는 종기가 생겨 진물이 흘러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긁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까닭 없이 저런 일을 당하겠느냐?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속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갈등과 고통도 끝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록 많은 손실과 고통과 상처가 남았지만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 그에게는 영적 안목이 열리고 믿음의 깊이가 더 해져 마침내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이라고 감격어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인생의 새로운 분수령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경험자이며 최악의 나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대신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성숙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되면 공리공론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은 강화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에 사로잡혀 괴로움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치열한 자기 논리로 논쟁한 욥에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혹평하셨습니다.(욥 38:1-2) 3절에서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사람의 주장과 논리의 부족함과 허무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논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이며 우주적입니다.

2.제가 회개합니다
 욥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6절)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가장 극한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의롭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온 교만과 무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마음을 녹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일생을 살았다면 그 삶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온 것이냐고 추궁하십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고 긍지도 높아야 하고 자존감도 충족해야 하지만 여기에 그치면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3.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욥이 회개하고 겸비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10절)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의 손상이었기에 그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존경받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은 완전한 이종인격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변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그때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욥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친구들에 대하여 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회복이란 내가 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누구의 삶에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회복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손달의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출 15: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3(시 99)...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0(43)...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욥 42: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뵈옵습니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09(409)...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36:13-14 인 도 자
 찬 송 210(245) 다 합 께
 기 도 정철웅 집사
 성 경 수 6:12-21 인 도 자
 흥해작전 승전보고 말 은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리고가 무너지다” ... 설 교 자
 * 찬 송 347(382)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김유경 권사 II부: 남태영 권사
 성 경 수 7: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한 사람의 범죄와 민족의 고통”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흥해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사-1시3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51명	574명	2,125명	478명	3,929명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는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둠에서 헤매이고 용기와 담력을 잃고 힘이 없어진다.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보다 귀하고 권세나 지식보다 아름다운 것이 의다. 이 의는 양식과 물처럼 천국 시민에게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 같은 의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입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기를 시도해 보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애타는 심정으로 세상의 것은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을 하게 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